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처음 제자들II

(요 1: 35 - 51)

이종윤 원로목사



3. 전도의 실제

(1) 안드레 전도법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요 1:41).

예수님은 첫날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곧바로 시몬에게 전도를 합니다. 안드레 전도법은 제일 먼저 형제,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일에 앞서야 합니다. 안드레의 전도 내용은 메시아였습니다. 전도는 이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안드레 전도법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2) 빌립의 전도 전략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 1:44-45).

빌립이 먼저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한 동네 사람으로 친구에게 또 전도한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것을 빌립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은 교양 없는 불량 무식한 동네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곳으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몹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그들에게 ‘와 보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에는 신념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 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와 보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가자’ 이것이 전도입니다.

(3)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음의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식 대화법

예수님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만나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② 초청 전도법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요 1: 39). ‘Come and see’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매우 권위 있는 초청입니다. 구도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행동과 관찰입니다. 오라는 것은 행동을 말해 주는 것이요 보라는 것은 관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행동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③ 새 이름(새 인격)으로 바꾸어 주심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요 1:42).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와 같이 든든한 자 혹은 바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칠한 무덤처럼 가증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증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새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④ 제자로서의 초청법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1:43). 이 말씀은 자칫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읽으면 이것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필연적 사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았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은 인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셨을지는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⑤ 의혹을 풀어 주심

예수님은 부르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다나엘의 심중을 이해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⑥ 구주를 고백하게 함

나다나엘은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신앙고백을 합니다(요 1:49). 나다나엘의 신앙고백은 베드로나 도마의 고백과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하는 말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전도의 모델로 삼고, 전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2019 사명자대회 -

주간 자유키도

총 1,787시간!



2019 사명자대회가 내일부터 4주차에 들어선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할 것은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사명자대회 기도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 첫째. 초대 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 둘째.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역사**, 진정한 회개가 있는 **통회의 역사**, 신앙이 머리에서 생활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셋째.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 넷째. 피동에서 능동으로, 받음에서 섬김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 다섯째. 사랑과 인내와 소망, 신행일치(信行一致)의 모범적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담임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옵소서
- 여섯째.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한기·송정옥 객선자 3교구 장창수·박혜정 이강진·송미령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0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0월 27일: 노선균(흉부외과) 김동건(치과)
- 11월 3일: 김봉배(통증) 박동우(영상의학)
- 11월 10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11월 17일: 최용준(한방)
- 11월 24일: 정철용(일반외과) 이경진(성형외과)

- 상담시간 :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사명자 대회 - 사명자의 묵상

예수님의 성경관

- 이레서 믿는다(Know Why You Believe) 중에서 -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그분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용하셨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처럼, 종종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으로 성경 본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둘러싼 사건들을 가리켜 성경의 성취”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마 26:54, 56 말씀 중).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참석자 한 명이 건넌 800년 전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하

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주목하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 이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입니다(요 10:35).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활용하신 것은 피상적이거나 부차적 차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줄곧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

수님의 가르침은 거짓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존중하셨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가셨고, 말씀을 성취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와 목적을 성경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은 마치 빵을 먹는 것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고 싶어진다.”

- ▶ 기도 :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요한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 성경통독 : (전 성도 성경읽기표 참조)
- ▶ 주어진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박노철 목사의 용역동원 건 기소까지의 법적 다툼의 정리

박노철 목사 측의 용역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피해자 대리인 박상훈 집사에게 정식 발급되었다. 순례자는 그 기소내용 설명과 함께, 이 기회에 그동안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되어 진행된 법적다툼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2015년 안식년규정 문제가 아닌, 박노철 목사 목회역량과 자질 문제로 서울교회 분쟁 시작
- 2. 2016년 중반부터 안식년 거부와 함께 성도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 버림

- 3. 2016년 11월 제100회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 상대 권징청구 기각

- 4. 2016년 12월 29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그러나 위 가처분기각결정은 이후 다수 장로 측의 1, 2심 본안판결 승소에 따라 2019년 1월 4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으로써 사실상 반복됨

- 5. 2017년 1월 14일 다수 장로 측,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에 따라 임시당회 개최

- 6. 2017년 1월 22일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과 함께 교회건물 외부계단 등에서 따로 예배를 시작

- 7. 2017년 4월 30일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 불법선출 2018년 3월 18일

- 이들을 임직시킨 후 다음날 20억 인출 등을 위한 임시당회를 개최함

그러나 법원의 2018년 3월 2일자 장로임직금지 가처분결정과 2018년 4월 2일자 장로임직 및 임시당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됨

- 8. 2017년 6월 법원, 박노철 목사 반대 교인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그러나 위 가처분 인용결정은 이후인 2019년 7월 3일 다수 장로 측의 본안소송판결 승소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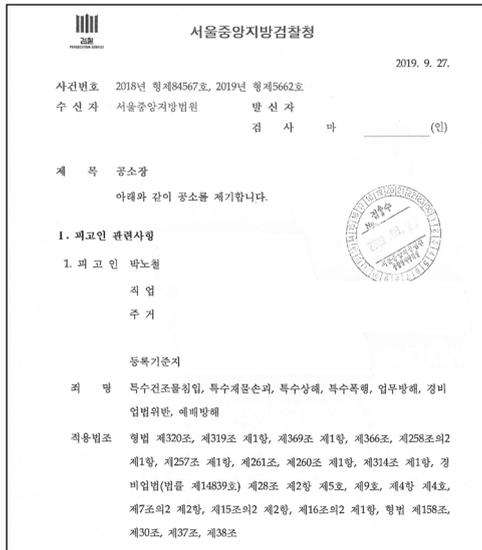
- 9. 2017년 9월 11일 제101회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관련 행정사건 세 건 모두 다수 장로 측 승소판결

- 10. 2018년 2월 13일 제102회기 재심 재판에서 위 세 건 모두 반복하는 판결

그러나 2019년 5월, 6월 제103회기 재재심 재판에서 그 중 두 건 파기되어 다시 바로 잡힘

- 11. 2018년 6월 14일, 12월 18일 법원의 안식년 규정 관련 본안 1, 2심 승소판결 -현재 대법원 심리 중

- 12. 2019년 1월 4일 법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 2019년 4월 11일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선임결정으로 교회 행정과 당회 기능이 법적으로 정상화 됨



13. 2019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박노철 목사 측 용역동원죄로 기소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3월 9일(금) 오후 7시 경 '궁중족발' 등 세상 여러 강제철거현장에 얼굴을 드러냈던 용역강패들을 앞세워 교회를 점령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용역을 동원한 불법예스러운 목사로서 용역들과 함께 법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야 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고소인들에게 보내준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박노철 목사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담임목사로서 서울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 교인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고, 동원된 용역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 등록된 청년들이다"라는 주장을 하여 왔지만, 담당 검사는

- ① 용역원들이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교인이 아니고 용역원들임을 자백한 사실,
- ② 박노철 목사 측에서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주겠다. 벌금이나 변호사를 다 해주겠다. 수사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많고 다 우리편이다.'라고 말한 사실,
- ③ 용역원들이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후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사실,
- ④ 박노철 목사가 용역원들 경호를 받으며 '이분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사실,
- ⑤ 박노철 목사가 침입 후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의자에 앉아 용역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시하고, 용역원들이 사무국에서 사무국원 등을 폭행하며 내쫓은 후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격려하고, 예배당 앞에서 용역원 등을 두드리며 격려한 뒤 차후 행동을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된 사실 등을 근거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 경비업법위반, 예배방해죄를 적용하여 박노철 목사를 포함한 핵심용역원 등 4명에 대하여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14. 박노철 목사 측, 현재 불법용역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을 불법점거 한 것에 대한 수십억대 손해배상소송에도 직면한 상황

박노철 목사 측은 아직까지도 용역회사만 바꾸어 계속 이들을 상존시키면서 반대 교인들의 출입과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9일 이후 반대 측 천여 명 이상의 교인들은 여름 무더위 속이나 겨울 혹한 속에서도 필요한 냉, 난방시설도 마음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했고,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 중 단지 1층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배는 물론 성경공부나 부서 활동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교육부서나 찬양대들의 불편은 물론 심지어 별도 집무실이 있던 부목사들도 좁은 1층 사무국 옆 비좁은 공간에서 임시로 책상을 놓아 겨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8층 식당도 사용하지 못하여, 매주 멀리서 만들어 온 음식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 식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거부로 인한 본격적인 분쟁발생 후 3-4천 명이 출석하던 서울교회 성도들은 그 숫자가 반감하여 버렸고, 특히 위와 같이 용역을 동원한 교회건물 불법점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점차 그 출석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용역점거 상태는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에 당회는 지난 2019년 6월 박노철 목사 측 100명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점거로 인한 반대측 교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수십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머지않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예정인바, 박노철 목사 측은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4년여, 건강하던 서울교회를 JTBC나 MBC PD수첩 등 반기독교적 언론의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세상에 비춰져 복음전도의 길만 막아 버렸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할 목사가 수천 성도를 흠여지게 하고 복음전도의 길까지 막아 버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회개하고 하루속히 위 불법점거를 해소하여 성도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총회재판국은 물론 세상 법정에서도 마지막 선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결국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타인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성도들을 선동하여 건강하던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을 돌로 쪼개버려 황폐화 시킨 책임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여러 송사들을 통하여 엄한 권징과 책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2019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성경암송대회를 위한
합숙훈련**

신경미 집사(12교구)

10월 12일에 치뤄진 성경암송대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12교구 장년부 다락방은 6월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각자 맡은 분량을 암송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정기적인 모임과 합숙훈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단체팀으로 사랑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고 수상자 명단에는 없으나 숨은 공로자도 있었습니다.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식과 함께 성경암송 발표까지 마치고나니 다락방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정 집사 - 마태복음 5장 1절-22절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나의 맘속과 머리에 새겨지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삶 속에서도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조상희 집사 - 마태복음 5장 23절 -44절

“묵묵히 말씀으로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소개해 주시는 희망으로 암송을 준비했어요. 교회를 회복케 해 주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요. Coram Deo!

노애리 집사 - 마태복음 5장 45절-6장 18절

“교회가 분쟁에 들어서고 각 가정 하나도 온전하게 지켜내기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랑하는 교회가 당한 현실에서 뭐라도 해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말씀 안에서, 성경말씀 만으로, 성경말씀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못하는 이 여정에 함께함으로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명원 집사 - 마태복음 6장 19절 - 7장 6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해 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 일상속에서 죄악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돌아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축복같은 시간을 함께 하여 준 다락방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경미 집사 - 마태복음 7장 7절 - 29절

“1년만에 서울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 날은 슬픔으로 목이 메이고, 올라오는 울컥거림으로 저의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말씀과 찬양으

로 변함없이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목표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함께 전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값진 결과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남재은 집사

“저도 의도치 않게 집에서는 가족과 다락방에서는 다락방식구들과 유·초등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마태복음 5장-7장을 수백 번 묵상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크게 느꼈던 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왔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살아나길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교회회복의 그날은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교회 사랑부 한승민 성도가 '플랫폼앰컨템포러리아트센터'에서 뜻 깊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한승민 성도는 올해 만 24세의 신진 작가로 2017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9, 10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전시<소리 없는 울림>을 시작으로 2014년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베이징 공왕부미술관에서 개최한 <中·韓전> 등의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2018년 <NADA ART & MUSIC FESTIVAL>에 초대되어 작품을 음악과 콜라보로 선보였다.

올해 2019년에는 9월 초부터 6호선 공덕역에서, LG U+가 운영하는 세계최초 5G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인 LG U+5G 갤러리의 초대 전시작가로 선정이 되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년 2월까지 전시가 되는데, 전시회 곳곳의 그림과 사진들이 스마트폰을 비추면 그림 속 인물과 풍경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될 정도로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흡사 음악가가 흥겨운 음악

을 작곡하는 것과 같이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한승민 작가는, 중학교 2학년 시절 학습지 모퉁이에 끄적이던 그림과의 인연으로 프로 작가 및 기획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로부터의 배움과 작품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동료작가들과의 교류, 공동 전시 등을 통해, 작가로서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각언어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승민 작가는 “캔버스에 나타나는 다양한 소재와 이미지들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인상 깊은 기억들을 작업의 모티브로 가져오는 작가는 솔직한 자신의 내면이 담긴 그림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그림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나아가 작가는 평면회화와 더불어 미술과 음악, 미디어, 문학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오늘도 '아지트'라고 부르는 그의 작업실을 찾는다.

종교개혁주일

'값싼 은혜' 선포로 둔갑한 중세의 '면죄부'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종교개혁주일이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M.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Wittenberg)대학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투의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 설교자들 가운데는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이 오히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돈을 주고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조상, 곧 부모님, 조부모 그리고 그 외의 조상 누구의 죄도 면제되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면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평신도들은 '면죄부'만 사면, 회개할 필요도, 선행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죄 사함의 은총을 돈으로 팔았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조논제' 제1항에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 4:17)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ominus et magister noster Iesus Christus dicendo 'Penitentiam(Mt



마르틴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4,17) agite etc.' omnem vitam fidelium penitentiam esse voluit."

여기서 'fidelium penitentiam'이란, 신앙에서 우리나라 온 깊은 참회의 삶을 의미한다고 계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교황은, 모든 죄의 사면권(赦免權)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마 9:6, 이 밖에 여러 곳), 이 세상 물질(돈으로) 죄용서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싸게 팔았던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의 설교자들을 향하여, "교황의 면죄부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있다"(제21항)고 선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들은 '회개의 선포가 없는 설교', 오로지 '번영', '일등', '제일', '축복', '평안', '큰 꿈' 등의 수식어를 붙인 축복만을 선포함으로써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값싸고 천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설교들은 많은 기독교 평신도들을 오직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기복(祈福)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성도들의 깊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없이는 참된 영적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pax', '평안하다pax' 외치는 설교자들에게 대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겔 13:10,16; 렘 6:14; 8:11; 살전 5:3)"(제 92항)고 계시하였다.

반면에 루터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cruz, 십자가cruz'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지아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제93항)라고 계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설교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 하나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신의 모든 죄를 '값싸게' 용서받고자 하는 평신도 마음 역시, '면죄부'를 산 중세 가톨릭 교우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면죄부'와 '값싼 은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를 촉구하였던 루터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는 길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주장을 지키는 것은 단지 지난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정황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

서울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바로 눈앞에 둔 2019 사명자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입니다.



2019 사명자대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김승록 집사
(2019 사명자대회 기도분과장)

설립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쉽 없이 달려오던 서울교회가 큰 아픔과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의 시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하며, 자유키도 신청을 통한 연속기도와 매일 정오에 전 교인이 동시에 드리는 느헤미야 기도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스테반회와 권사회 회원은 0시-오전 5시,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자원하여 기도함으로써 중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며, 교회학교 유년부 이상은 교역자와 학생들이 토요일 한날을 정해 모여서 기도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키도신청서"에 자율적으로 작성하신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으로 기도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는 2019 사명자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봉사지원서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교구일꾼으로, 헌금 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0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는다.

금주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2020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11월 3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육군 제22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11월 2일(토) 오전 6시 30분, 교회출발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육군 제22사단 신병교육대 동해교회에서 진중세례

식을 진행한다. 출발은 11월 2일(토)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사랑부(부장 : 이강인 집사)는 오늘 오후 1시에 '천사들의 음악회'를 갖는다. 서울교회와 함께 개설된 사랑부도 교회와 함께 여인 28년을 달려왔다.

사랑부 학생들이 두 달여 동안 합창, 중창, 이중창, 워십, 연극, 벨 플레이트, 난타 등을 열심히 연습

했다. 그간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수고한 사랑부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 1시, 1층 사랑부실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음악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20일 주일 찬양 예배 시 2019년 세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달(격월) 3째 주 주일 저녁찬양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 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서대식, 임항빈 계 2명
- 입교자: 최수용 계 1명
- 유아세례자: 채은유 계 1명
- 총 4명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28일	월	요 4:46-6:15		겔 28-33	
10월29일	화	요 6:16-7:31		겔 34-40	
10월30일	수	요 7:32-8:59		겔 41-48	
10월31일	목	요 9-10		단 1-5	
11월1일	금	요 11-12		단 6-12	
11월2일	토	요 13:1-15:17		호 1-14	
11월3일	주일	요 15:18-18:40		울 1-3	

동정

■ 이준용 원로목사는 10. 31(목) 한국군선교 6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11. 2(토) 사랑의 쌀운동, (몽골)국제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전시회 : 사랑부 한승민 성도 『2019굿모닝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기획전』 10월 26일-10월 30일 플랫폼컨템포러리아트센터



■ 공연 : 강양모 성도(베들레헨찬양대) 창작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각오』 11월 11일 오후 8시 잠실 롯데콘서트홀

■ 금주의 식사 : 손태현 집사 박해옥 집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비법담 김치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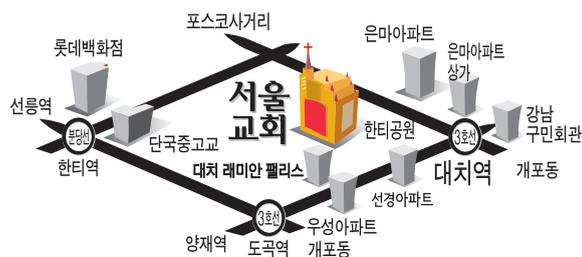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19 사명자대회 릴레이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회 힘씀으로써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 11월 2일(토) 제22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선교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